



7월 지육시세는 3,300원/kg 예상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도축두수가 줄어들면서 5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월 평균 돼지가격은 3,828원을 기록하고 산지가격은 100kg기준 두당 252,000원을 기록하여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높게 형성된 돼지가격을 보면 양돈농가들이 경영안정의 호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많은 농장들이 이러한 호경기에 어려워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많은 자돈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돈의 만성 호흡기 질병으로 육성단계 자돈에서 많은 자돈들이 죽어서 실제 출하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양돈농가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한 높게 인상된 사료가격으로 생산비 또한 상승하여 농가의 수익 향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도매시장과 전국의 도축두수를 조사하여 보니 출하두수의 감소는 특히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돼지두수 감소가 돼지가격의 상승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전국의 도축두수는 4,960천두로서 전년동기 대비 약 35% 감소하여 도축두수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데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으로의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출하두수는 전년동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계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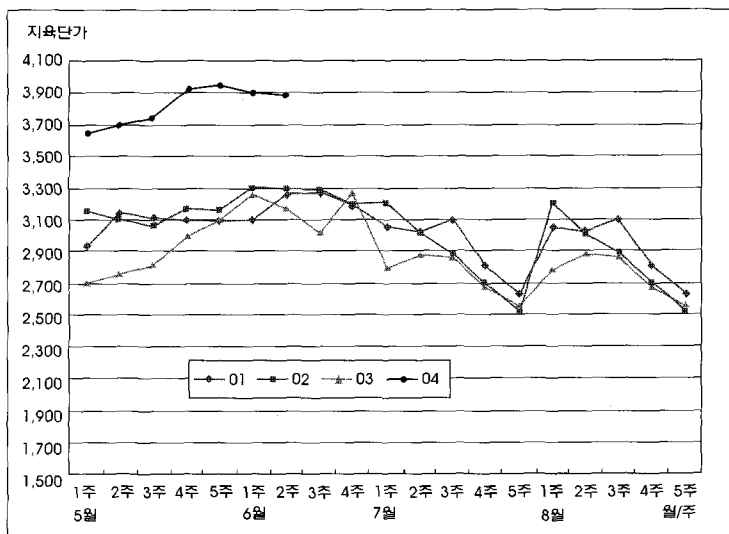
기 대비 12.3%가 감소하여 611,542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매 시장에서 돼지를 공급받던 중간상인이나 대형 정육점과 식당들은 돼지고기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돼지두수는 매년 줄어들고 육가공 업체로의 출하두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계속되면서 도매시장에서의 돼지고기 부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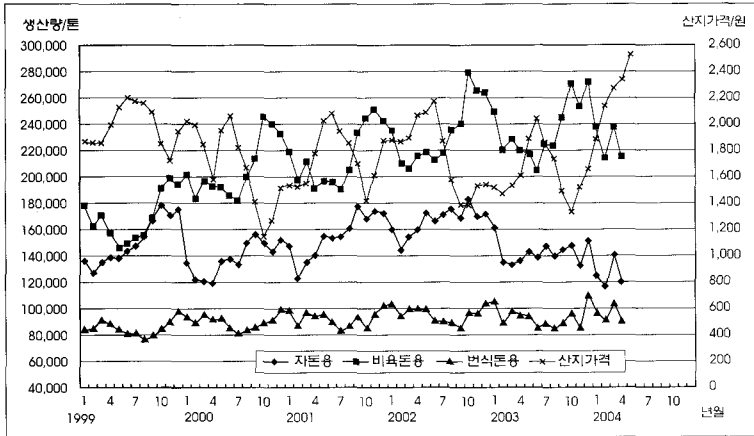
이제 모든 양돈인들의 관심은 이러한 고돈가를 더욱 오래 유지하고 싶어하겠지만, 사실 이러한 돈가의 강세는 10년에 한번 오는 강세장으로 보고 지금부터 차분히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지난 연말 광우병으로 시작된 쇠고기 소비 감소가 산지 소 값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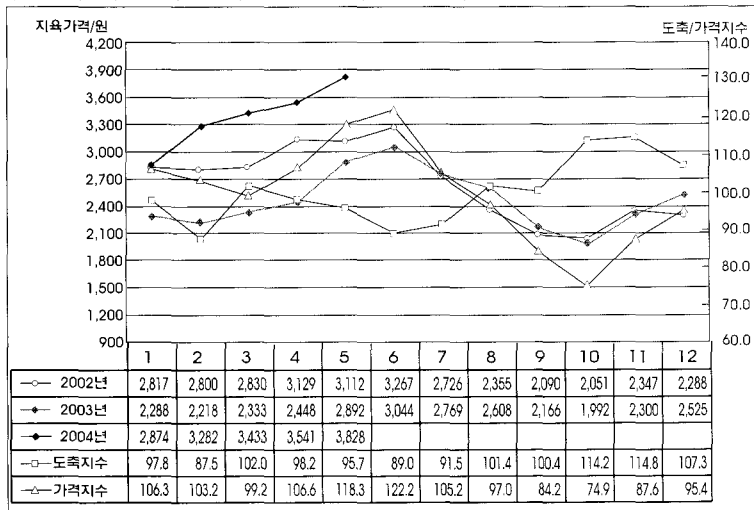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개년간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6개년간 월별 사료 생산량의 변화와 돈가 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출하물량을 예측하는 자료인 양돈사료 생산량은 지난 3월말 사료가격 인상을 대비한 가수요의 발생으로 약 10%의 증가가 있었고, 4월에는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자돈사료 생산량은 502,883톤으로 12.6% 감소하여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돈사료 감소 폭에 비하여 모돈과 비육돈 사료의 감소 폭은 약 15%대로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이러한 자돈사료 물량의 전년동기 대비 감소 폭은 1월 22.7% 감소, 2월 13.4% 감소, 3월 4.7% 증가, 4월 11.2% 감소하여 그 감소 폭이 점차 줄어들어 7월 이후 출하물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금년 상반기에 자돈의 만성 호흡기 질병의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장들이 점차

회복되어 금년 하반기 출하물량은 점차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수입 돈육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5월에만 1만4천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 하반기에는 수입량 증가와 출하량 증가로 공급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소비량은 반대로 감소하면서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매년 7월은 돼지고기 시장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때이다. 초복을 전후한 시기에는 닭고기와 기타 영양식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수입돈육의 유통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돼지고기는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2004년 7월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평균단가는 약세를 보이면서 3,300원대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 같다. **양돈**